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 '명심보감 전도사' 김병조 조선대 초빙교수



방송인이자 한학자인 김병조 조선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29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람은 다 주어진 배역 있어... 분수 지켜야”

자녀들에게 명심보감 만큼 좋은 교육 없어

15년전부터 강의... “추억의 예향 복간 오져요”

“안분신무욕(安分身無釋)이요, 지기심 자한(知機心自閑)이나라. 분수를 알고 지키면 일신에 욕됨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면 마음이 절로 한가해진다.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수가 될까요. 4분의 3은 진분수고, 4분의 5는 가분수입니다. 가분수는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을 쓰고, 진분수는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부족하게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김병조 조선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29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진행된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에서 “사실 여러분이 강의를 하시고, 저는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라고 입을 열었다.

장성 출신인 그는 이날 가난한 양반집 안에서 7대 장손으로 태어나 어렵게 고등학교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연, 한때 70%의 시청률을 오르내렸던 코미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일화, 그리고 1987년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먼저 소개했다. 그는 강의 중간 “오지다”라는 말로 서울에서 광주일보와 자매지인 '예향'을 받아왔던 추억들을 얘기하기도 했다.

“1987년 정치행사에서 대본에 적혀있던 말을 그대로 읽었던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7년간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디다. 그 말을 시킨 사람도 문제지만 대본을 읽은 저도 죄인이었죠. 신문에 보도한 기자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자를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명심보감 강의를 하고 있는 그는 시간이 부족해 모든 강의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다. 학교, 기업은 물론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관리자 과정 등 정부 기관에서도 강의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명심보감에 통달한 그의 한학은 선친에게 배운 것이다.

“명심보감은 중국의 여러 고전 중에서 좋은 구절만 뽑은 것입니다. 제가 명심보감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라야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명심보감만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저희 부친은 제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 ‘함혈분인(含血噴人) 선오기구(先汚其口)’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머금어 남에게 뱉으면 먼저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오륜(五倫)의 하나인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 부, 자식 자, 있을 유, 친애할 친 등으로 읽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친애하며 공경해야한

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는 것. 하지만 친할 친으로 해석해 자식들이 부모를 친구로 보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명심보감 안분권 한 대목과 동료 연예인이자 선배인 배우 임현식, 전원주 씨의 이야기로 분수를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연극이다’고 말했는데, 우리에게도 다 주어진 배역이 있습니다. 임현식씨와 전원주씨는 왕과 왕비를 시켜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조연으로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기를 얻으면 외제차를 사고, 큰 집을 사면서 옛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사빈난위곤 자연불교(長思貧難危困 自然不驕) 매상관경오전 범무수민(每想 官病驚顛 並無愁悶)’”

‘가난하고 어렵고 위태롭고 곤란했던 시절을 잊지않으니 자연히 교만하지 않게 되고, 얼굴과 몸에 병이 들어찬 것을 늘 생각하니 아울러 근심과 고민이 없어진다’라는 말이다.

그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찰이 들고 부모님을 생각하니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존경한다는 말하세요. 그리고 항상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어머니처럼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 1급 발암물질 석면건축물 11만채

이명수 의원 지적... 슬레이트 철거 4.4% 불과

광주시·전남도 건축물 5곳중 4곳서 석면 검출

전남지역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율이 4.4%에 머무르면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섞인 11만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중인 건축물 5곳 중 4곳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11만6000동으로, 현재까지 4.4%인 5117동만 철거됐다.

슬레이트는 석면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

급 발암물질인 백석면과 갈석면이 검출된 유해물질이다.

이명수 의원은 “환경부 조사에서 슬레이트 건축물 주변 토양조사결과 채취시료에서 17.4%의 석면이 검출됐다”며 “철거를 위한 지방개발비 등 국비 지원 확대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주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축사 및 창고시설도 지원토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사용중인 건축물 7147개 동 중 석

면이 검출된 건축물의 수는 4064개 동으로, 검출률이 56.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소유 또는 사용중인 건축물 127개 동 중 100개 동(78.7%)에서 석면이 검출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고, 이어 전남도는 276개의 건물 중 209개 동(75.7%)에서 검출됐다. 광주와 전남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석면 함유 건축물을 갖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건축물 중 절반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상수도관 노후 누수 손실액 연 330억

누수율 21.5%... 전국 2배

새누리 이명수 의원 지적

전남지역 상수도관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관이 3400km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누수로 인한 손실액만 매년 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이 전남도 국정감사(31일)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상수도관 총 연장은 1만3571km이며, 이중 20년 이상 노후관이 3455km였다. 이는 총 연장대비 25.5%에 달하는 수치다.

이명수 의원은 “전남지역의 지난해 기준 상수도 누수율은 21.5%로 전국 평균 10.4% 대비 2배 이상 높고, 연간 누수량은 4200만

톤으로 추정손실액이 33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관이 낡아 물 100t을 보내면 78.5t만 가정까지 도달하고 나머지는 졸졸 샌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 더딘 것은 열악한 지방재원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국고보조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투자 협약 허탕 10조원

2008년 이후 16% 중도 포기·중단

김태원 의원 밝혀

전남도가 지난 2008년 이후 유지한 투자금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보류된 투자금이 1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국내외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MOU)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유지한 투자금 중 10조원 가량은 실제로 투자되지 않았다.

전남도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외 기업 1455곳에서 유치한 투자금은 76조5088억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6.4%인 1238개 기업이 투자를 포기 또는 중단했다. 이들 기업이 포기, 중단한 투자금은 9조9934억원에 달했다.

포기, 보류된 기업 투자금을 국내외로 나눠 살펴보면 국내기업 1387곳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65조1410억원 중 포기된 투자금은 7조4610억원(203개 기업)이었고, 중단된 투자금은 3614억원(17개 기업)이었다.

또 국외기업 68곳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11조3678억원 중 2조1710억원(18개 기업)이 투자를 철회했다.

김태원 의원은 “투자협약 체결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 당시 기업의 자금사정, 투자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박준영 지사 우수단체장상

박준영 전남지사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박 지사는 지난 2004년 첫 취임 이후 전남여성플라자 건립 및 재단 설립, 광역도단위 최초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 여성취업·창업박람회 권역별 개최, 여성발전기금 56억원 조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2006년 성별영향평가 대통령표창, 2011년 아동·여성폭력 방지사업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박대통령은 “이제 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끼가 사회발전에 적극 활용되고 발휘돼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